



4th Story

**세례를 받으시고
시험을 당하셨습니다**

Into the Wilderness.

세례를 받으시고 시험을 당하셨습니다

- 4th Story -



카메론 (느리게 낙타 톤으로) 아아엇 뜨거~~ 언제까지 여기 이러고 있어야 되야는거야... 여긴 맨날 똑같은 일만 되풀이되는 것 같아여... 엄청 따분해요... 사람들이 와서는 요한이라는 사람이 하라는 대로 물에 빠졌다가 나오고... 빠졌다가 나오고 해요. 이 요한이란 사람... 좀 이상한 사람 같아요. 자는 건 사막에서 자구, 먹는 건 벌꿀을 막 벌집 통째로 먹구요, 입는 건 낙타털로 된 옷을 입는다니까요, 제 기분이 어떻겠어요? 제가 낙탄데... 와 진짜 우리 동족을...

요한 나는 세례를 줄 때 물을 가지고 주지만, 곧 하늘로부터 한 분이 오실 텐데... 와 진짜....

난 그냥 그분의 신발끈도 맬 수 없을 만큼 엄청난 분이시라고요.

카메론 맨날 저 얘기... 나 진짜 간다아아아~~ 어어? 사람들이 더 몰려오는데요?

요한 (감격해서) 이분을 보세요~!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세요.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. 제가 지금까지 말했던 그분이 바로 이분이라구요.

소니 야 야~~ 넌 이름이 뭐냐?

카메론 나... 카멜마끼아또, 그냥 마끼아또라고 해도돼.... 넌?

소니 난 오키돈키야

카메론 그나저나 저 낙타로 옷 해 입은 저 아저씨가 말한 것처럼, 니가 태우고 온 저 아저씨가 그렇게 특별하신거야?

소니 아 그럼. 당연하지. 아니 그 이상이지. 난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아저씨네 가족이랑 같이 살았거든. 진짜 특별특별한 분이셔. 우리 아빠가 저 분이 태어나셨을 때 같이 있었는데 그때부터 장난 아니었다니까.

카메론 진짜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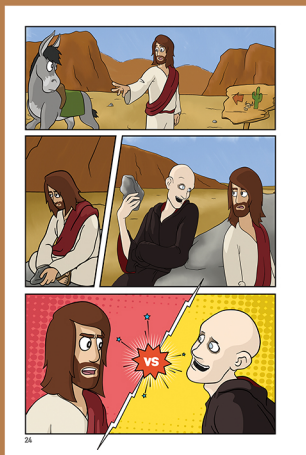
소니 너 지금 못 믿겠다는 거냐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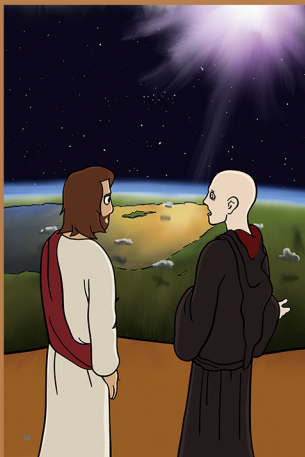
카메론 아냐 아냐... 뭐. 근데... 내가 전에 신기한 걸 본 적이 있는데, 그게 다 속임수더라고. 난 그냥 무슨 기술 좋은 그런 사람인 줄 알았지.

소니 보면 알게 될 거다~~.

예수님 난 당신에게 세례를 받으러 왔습니다.

요한 뭐 뭐라구요? 내가 아니 제가 어떻게 당신께 세례를 베풀 수 있겠습니까? 당신이 저에게 세례를 주셔야죠. 마 맞아요. 그 그래요. 저에게 세례를 베풀어주세요.





- 예수님 요한~!! 지금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주세요. 이건 저에게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. 그리고 저를 보내신 분에게도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. 당신이 꼭 해주셔야 돼요!
- 요한 아아 알겠습니다. 주님. 당신께 그리고 위에 계신 하나님께 중요한 일이라면, 그렇다면, 저에게도 중요한 일이죠. 그럼 원하시는대로...
- 나레이션 요한이 예수님의 머리를 물속에 담갔어요. 그런데 바로 그때 갑자기 하늘이 환하게 밝아왔어요. 그리고곤 비둘기 한 마리가 어디선가 내려왔어요. 그리고곤 목소리가 들려왔어요.
- 요한 어어엇!!
- 천국의 소리 이 사람은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ियो, 난 이사람 때문에 정말 기쁘단다.
- 군중 우워우워워워워워워워어어어오왕~~~
- 요한 주님~!!주님
- 예수님 요한, 고마워요.
- 카메론 뭐야 뭐였지? 세상에...
- 소니 아니 아니 성령이시잖아~~~
- 카메론 저거 봤어? 저 목소리는 어디서 온 거야? 세상에나 세상에나... 저 비둘기는 바로 그분에게 날아가더니, 그분 어깨에 앉았어~~
- 소니 (웃으며) 내가 말했잖아. 그분은 상상할 수 있는 것 이상이라구.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셔. 그냥 특별하신 게 아니라니까.
- 카메론 우와... 완전 우와... 믿지 못했던 거 사과할게. 이젠 진짜로 믿을 수 있어.
- 소니 근데 나 이제 가봐야겠어. 아마 우리 언제가 다시 만날 수 있을게야.
- 카메론 그래! 잘 가!~~~
- 나레이션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에, 예수님은 사막으로 가셨어요. 홀로 가셔서 아무 것도 드시지 않으시면서 기도하셨답니다.
- 예수님 고마워 오키دون키. 하지만 이제 나 혼자 이 길을 가야한단다. 가보렴. 나중에 또 보자.

40일이 흐른 뒤

- 예수님 아멘
- 사탄 아... 이 둘 좀 봐 난 니가 누군지 안다고... 예수... 그냥 말만하면 저걸 다 빵으로 만들 수 있잖아... 자 자... 하고 싶잖아 너도...
- 예수님 아닌데?



사탄 에이... 그냥 작은 돌 하나만... 배고프잖아... 응? 여기 몇 일 동안
있었지? 40일? 아무 것도 안 먹었잖아? 응?

예수님 성경 말씀에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
산다고 쓰여 있다.

사탄 아 그런가? 자자...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... 어때? 그래, 여기서 한번
뛰어내려버리는 거야. 나도 말씀 다 알아... 나도 아는데 말이야...
하나님이 천사들에게 명령하실 거라고... 천사들이 두손으로 잘
받들어 줄거라니까... 100%! 완전! 털끝 하나 안 다칠야~
걱정마~우리 한번 시험해보자~ 어?

예수님 성경에 이르기를 너의 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써 있다.

사탄 (화를 삭이며 숨을 내쉰다) 여기 보이지? 그래! 고래를 들어봐! 네가
보는 모든 거. 내가 정말 친절하게 잘 갖다바쳐줄게. 그러니까 그냥
찌에끔만 사알짝 그냥 나에게 절 한 번 하면 어때? 아님 뭐...
그냥 잠깐 앉았다 일어선다고 생각해보라고. 다 준다! 다 줘!

예수님 사탄~너 진짜 질리는 스타일이구나~ 성경에 이르기를
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기라 하셨다, 썩 물러가라~

사탄 으아아아아 너무해~~ 와 진짜 노잼 그것도 핵노잼이구만.
나 진 거 아니다. 나 아직 너랑 안 끝났다고.